

#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의 시계열 분류 및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Time Series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n Korea

박태원 Park Taewon	광운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제1저자) Professor, Dept. of Real Estate, Kwangwoon Univ.(Primary Author) (realestate@kw.ac.kr)
최정호 Choi Jeongho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장(교신저자) Administrator, Seoul Regional Aviation Authority (Corresponding Author) (jchoi@korea.kr)

##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 1. 선행연구 검토
  - 2. 분석 틀
- III.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의 시계열 분류
  - 1. 산업단지 개념과 유형
  - 2. 산업단지 지정 현황
  - 3. 산업단지 개발과정 시계열 분류 기준
  - 4. 산업단지 개발과정 시계열 분류 및 시기별 특징
- IV.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특성 분석
  - 1. 국제공간분업구조 및 자본이동과 연계
  - 2.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
  - 3. 국토산업공간의 진화
  - 4. 입지결정요인의 다양화
  - 5. 토지이용구조의 고도화
- V. 결론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한 것임.

본 논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재편집, 발전시킨 것임.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조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최근 산업의 융복합화와 고도화가 진전되고 국가 간,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입지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가핵심 산업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산업단지가 나아가야 할 정책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산업단지 개발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0년 초부터 최근까지 지난 50여 년간의 산업단지 개발과정을 의미 있는 기준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분류하여 시기별 내용과 특징을 짚어보고 이를 국내외 경제흐름과 산업구조 변화, 국토공간정책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개발과정에 나타난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산업단지의 출현과 개발과정,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일관된 시각으로 반추해 봄과 아울러 앞으로의 바람직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초의 산업단지가 지정된 1964년부터 2010년 9월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국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산업단지 변천 및 산업단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경제 및 산업기술정책, 국토공간정책, 산업입지정책 등에 관한 선행연구와 산업단지 개발백서, 정책연구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채택했다.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단지 개발과정 및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산업단지 개발과정을 산업단지 유형별 지정 시기, 당시의 국가 산업 및 공간정책 등을 토대로 시대별 분류기준을 선정하여 새로운 시계열적 분류를 시도하고 그 특징을 도출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에 나타난 특성을 국제경제구조 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국토공간진화, 입지결정요인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바람직한 산업단지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순으로 했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 1.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을 시기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유영휘(1998: pp45-88)와 류승한(2009: pp9-43)을 들 수 있다. 유영휘는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공업단지 개발의 발자취를 시대별, 지역별로 정리했는데, 1960년대를 내륙공업단지 개발기, 1970년대를 임해공업단지 개발기, 1980년대를 농공단지 개발기, 1990년대를 과학산업단지 개발기의 4기로 구분했다. 류승한은 1960년대부터 시기별로 산업단지 개발정책과 주요 특징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였는데, 1960년대를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의 시작기, 1970년대를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규모

표 1\_ 선행연구와의 차이 비교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시기 분류기준	없음	지정시기 및 단지유형, 국가산업·공간정책 등
시기별 기간	10년 단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기간 상이
개발특성 분석범위	시기분류와 미연계, 국내환경변화에 국한	시기분류, 국내외 경제흐름, 산업구조 변화 등과 연계하여 분석

산업기지의 개발, 1980년대를 산업단지 개발의 확산과 내륙산업단지의 개발, 1990년대 이후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단지 개발의 다양화로 분류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과정과 특징에 대해 연구의 일부분으로 분석한 것으로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2005: pp15-23)는 1960년대: 수출산업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산업단지 내실화 및 농공단지 조성, 1990년대: 신산업지대개발과 법률 통폐합, 2000년대: 소규모 전문화된 산업단지 개발로 분류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2005: pp7-13)의 경우도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중점 육성된 산업의 유형과 입지정책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산업단지의 개발과정을 시기별로 분류함에 있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등 단순하고 일반적인 시기분류 단위인 10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시기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국가산업 및 공간정책, 지정된 산업단지의 유형, 입지 분포 등이 시기분류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과정에 나타난 특성 역시 논문의 일부분으로 언급하는 수준이거나 분석의 내용과 범위가 국내 정책 환경 변화에 국한하고 향후 산업단지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까지 일관적인 체계 하에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산업단지가 국내외 경제여건, 산업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 산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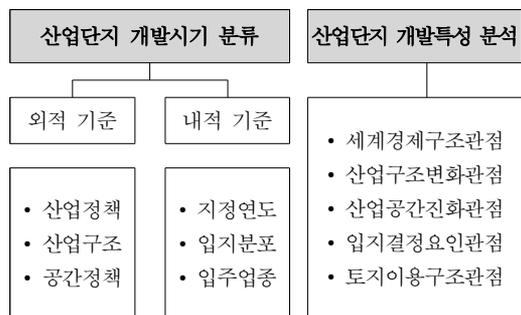
책 및 국토공간정책 등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과의 함수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이러한 다차원적인 각도에서 새로운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지난 50여 년간의 개발과정을 시계열로 구분하고 이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산업단지 정책 방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 2.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개발과정과 특성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 전 과정에 대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계열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산업단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외적 기준으로는 ① 국가 최고의 발전전략을 형성하는 국가산업정책, ② 산업구조의 변화, ③ 국토개발과 산업입지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공간정책 등 3개를 핵심으로 선정하였다. 1960대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정책은 수출위주의 경공업 중심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산업기술정책, 국토공간정책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공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단지공단개발조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구로, 부평, 주

그림 1\_ 분석 틀



안 등에 수출산업 공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은 당해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산업발전 및 도시구조, 인구분포 등 다방면에 걸쳐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다시 국가경제, 산업, 기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류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외적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내적 기준으로는 산업단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서 산업단지의 유형별 지정연도, 입지분포, 입주업종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산업단지는 세계경제구조와 국제 간 분업,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 글로벌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과정에 나타난 특성을 세계경제구조, 산업구조 변화, 산업공간 진화, 입지결정요인, 토지이용구조 변화 등의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III.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의 시계열 분류

#### 1. 산업단지 개념과 유형

산업에 대한 개념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태동한 산업혁명으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개념은 인간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 상업, 금융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생산에 직결되지 않은 부문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 역시 초기의 공업단지 수준으로부터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제정 당시의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업단지라 함은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표 2\_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의 종류

구분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
지정	국토해양부	시·도	시·도	시·군·구
규모	제한 없음	3만㎡ 이상	1만㎡ 이상	3~33만㎡
지정제한	미분양률 15% 이상	미분양률 30% 이상	미분양률 30% 이상	미분양률 30% 이상
지정지역	제한없음	좌동	도시계획구역	농어촌지역

포괄적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공업용지를 말한다”라고 하여 산업단지의 범위가 공장용지의 공급에 한정되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공업단지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었으나 오늘날의 산업단지는 공장용지는 물론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는 복합 개념이 되었다. 현행 산업입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되고 있는 등 산업입지 환경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어 오고 있다.

산업단지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입주기능에 따라 전통산업단지·업무단지·과학단지, 입지에 따라 도시형·준 도시형·농촌형으로, 개발주체에 따라 민간형·정부형·민관합동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유영휘, 1998: pp28-29).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3\_ 전국산업단지 지정·운영현황

(개, 천㎡, %)

유형	단지	지정면적	개발	분양
계	879	1,315,643	480,270	470,998
국가	40	802,345	366,059	286,495
일반	416	445,784	303,988	140,369
첨단	6	745	404	89
농공	417	66,769	52,439	44,045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홈페이지(<http://industry.land.or.kr>), 2010.9월 현재기준.

### 2. 산업단지 지정 현황

2010년 9월 말 현재 지정된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879개로 국가산업단지 40개, 일반산업단지 416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417개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수는 4.6%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전국산업단지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34%, 농공단지 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_ 산업단지 개발과정 시계열 분류기준

### 3. 산업단지 개발과정 시계열 분류기준

국가 산업정책 및 국토공간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유형과 입지 등이 결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하게 10년 단위로 분류하고 있어 시기별 특징이 혼재되고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계열 분류를 위하여 그 분류기준을 산업단지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중 산업단지 자체의 내적 기준을 1차적 판단기준으로, 외적 기준을 2차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내적 기준으로는 산업단지가 내재하고 있는 특성으로서 산업단지 유형(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 산업단지)별 지정시기와 입지분포(내륙, 임해, 농촌, 도시), 입주업종(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의 3개를, 외적 기준으로는 산업단지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산업정책(경제개발계획, 산업기술정책, 산업구조 변화(1차, 2차, 3차 산업), 국토공

산업단지 내적 기준 (1차적 기준)	산업단지 외적 기준 (2차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별 지정시기 (국가/일반/농공/도시첨단)</li> <li>입지 분포 (내륙/임해/농촌/도심 등)</li> <li>입주업종미분양률 (경공업/중화학/첨단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전략 산업정책 (경제개발, 산업기술정책)</li> <li>산업구조 변화 (1차/2차/3차산업)</li> <li>국토공간정책 (국토종합개발계획 등)</li> </ul>

간정책(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입지제도)을 선정하였다.

시기분류기준 설정을 위하여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외에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현황 및 산업단지관리계획, 한국은행의 경제통계 등의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 4. 산업단지 개발과정 시계열 분류 및

시기별 특징

산업단지 개발과정의 시계열 구분은 위에서 설정한

1)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또는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절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기준에 따라 제1기: 내륙/경공업 산업단지 개발기 (~1973), 제2기: 임해/중화학공업 산업단지 개발기 (1974~1983), 제3기: 지방/농공 산업단지 개발기 (1984~1995), 제4기: 전국/복합·첨단산업단지 개발기(1996~2007), 제5기: 도심/노후산업단지 재생기 (2008~)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시기별 명칭은 시기별로 보다 명료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산업단지의 입지분포 특징과 시기별로 지정된 산업단지 유형 두 가지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시기별 구분의 전환점이 되는 산업단지 주요정책과 지정된 산업단지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면 1기의 경우 도시계획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어 도시지역 공단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64년에는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이 제정되고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이 지정되는 등 수출산업단지 중심의 국가산업단지와 대구 인천, 대전, 청주 등 지방 중심도시에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

제2기에는 임해지역에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한 중화학공업 입국정책이 1973년도에 선언되고 이를 위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같은 해에 제정되었

으며 1974년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최초의 중화학산업단지가 온산, 창원 등에 지정되었다. 이 기간 중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국가 주도로 지정되었다.

제3기는 1983년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최초의 농공산업단지가 1984년에 지정되었다. 제3기에 총 378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었는데 이 중 국가산업단지는 12개에 불과하고 농공단지가 275개 지정되는 등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방공업단지 위주로 개발된 시기이다. 특히 농공단지의 개발이 농어촌 소득증대일환이라는 정책과 아울러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국토공간 재배치 정책과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았다.

제4기에는 1996년에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공장용지 공급위주였던 공업단지가 복합기능인 산업단지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1997년에 벤처기업육성촉진법과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례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첨단산업단지 도입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표 5\_ 산업단지 개발과정 시계열 분류 및 전환점

시기	기간	시기 명칭	산업단지 시기분류 전환점	
			산업단지 관련 주요정책	산업단지 지정유형 및 특징
1기	~'73	내륙/경공업산단 개발기	도시계획법제정('62), 수출산단조성법('64), 최초 국가산단지정('64)	수출산단(구로, 부평, 주안, 익산 등), 내륙일반산단(대구성서, 인천기계, 대전1.2, 청주, 서울운수 등) 등 17개 산단 지정
2기	'74~'83	임해/중화학산단 개발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화학공업입국정책선언('73) 최초 중화학공단지정('74)	중화학산단(온산, 여수, 안성, 옥포, 죽도, 창원, 울산, 포항, 광양, 진해 등) 중심으로 40개 산단 지정
3기	'84~'95	지방/농공산단 개발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83)1차수도권 정비계획수립/최초 농공단지지정('84)	농공단지(275개) 중심으로 378개 산단지정('84 농공단지 최초지정)
4기	'96~'07	전국/복합첨단산단 개발기	공업단지→산업단지('96)벤처기업육성촉진법/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97)도시첨단지정('01)	오송생명, 파주출판, 송도지식정보, 오창과학, 파주LCD 등의 첨단산단 등 206개 산단지정('02 도시첨단 최초지정)
5기	'08~	도심/노후산업단지재생기	산업단지인허가절차법('08)노후산단지정/구조고도화시범단지지정('09)	노후산업단지 재생,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12개 지정

제5기인 2008년 9월에는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절차 간소화법이 제정, 시행되어 산업단지 개발절차가 대폭 단축되어 산업단지 개발이 재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9년에는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구조고도화를 위한 시범단지가 지정되는 등 산업단지가 다시 국가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중흥기가 도래하였다. 이 시기는 산업단지의 입지분포나 지정된 산업단지의 유형 측면에서 여타 시기와는 달리 기간 전체에 걸친 특징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기별 특징을 몇 마디로 축약하는 데 나타나는 시기분류의 일반적인 한계성을 감안할 때 비록 기간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논의와 탐색단계에 머물러 왔던 산업단지 재생과 구조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대상 단지가 도시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이 시기의 중심 특징으로 삼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 1) 제1기: 내륙/경공업단지 개발기

제1기는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하여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단지가 주로 내륙지역에 지정된 시기로서 중화학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지정되기 시작한 1974년의 전년도인 1973년까지를 기간으로 정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에 따라 가발, 합판,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육성되었다. 1964년 9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을 위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단지인 구로와 부평, 주안, 구미, 익산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제2차 계획(1967~1971)은 그동안의 경공업 중심정책에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개발 및 육성을 통하여 공업 구조 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목표의 전환이 이

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기계공업진흥법과 조선공업진흥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 등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개별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지역 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 1도 1단지 건설의 지역안배 원칙에 따라 지방중심도시인 대구, 전주, 인천, 성남, 대전, 청주 등에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는 등 국가와 지방산업단지가 균형을 이뤄 개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토지수용특례법에 따라 1962년에 울산공업지구가 지정되었고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제1기에 개발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1기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단지가 값싼 노동력 공급이 유리한 내륙에 입지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동시에 균형 있게 조성된 시기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2) 제2기: 임해/중화학단지 개발기

제2기는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81)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에 따라 중화학공업 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1974년부터 동남해안에 조성된 시기이며 1984년부터 시작된 농공단지 개발이 착수되기 이전의 기간이다.

제2기는 산업의 축이 제1기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업단지 입지도 종전의 내륙에서 중화학공업의 특성에 적합한 임해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 기간에는 1973년 10월 1차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단순 가공 저부가가치형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화학, 철강, 기계, 전기 등 중화학제품의 수출상품화를 위하여 제2차 계획기간에 이

어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1981) 기간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의 혁신과 능력의 향상, 투자재원의 국내조달 시도 등을 기본방침으로 삼았다.

특히 국토공간정책에 대한 법정 기본계획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어 공간정책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제1차 계획은 1970년대 국가산업정책에 맞춰 국민경제발전 선도할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과 대도시 및 각 지역, 산업중심지를 연결하는 교통통신 및 에너지 공급망 확충, 개발의 편중으로 발생하는 농어촌 등 부진지역의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제2기 기간에는 이러한 대단위 중화학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지개발촉진법과 특정연구기관육성법(74), 공업배치법(79)이 제정되었으며 온산·여수·안정·옥포·죽도·창원(74), 울산미포·북평·포항(75), 대덕1·안산·구미2.3.4(77), 아산(79), 남동(80), 광양(81) 등의 산업단지가 지정, 개발되었다.

제2기는 산업의 중심축이 제1기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위한 산업단지가 남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임해지역에 중앙정부 주도로 개발된 시기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 3) 제3기: 지방/농공단지 개발기

제3기는 농공단지 지정근거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1983년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84년에 최초로 농공단지가 지정되었으며 지방 산업단지시대를 공간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이 수립, 시행되었기 때문에 1984년을 개시년도로 삼았으며 산업단지의 복합화·첨단화가 제도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1995년을 종료연도로 정하였다.

그동안의 성장위주 국가산업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부동산투기,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 국가

주도·중화학공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1986)은 물가안정과 개방화, 시장경제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과정에서 경험한 정책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0년대 초부터 중화학투자를 조정하고 산업을 합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1960, 1970년대에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산업 육성법이 1986년에 모두 폐지되었으며,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기능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국토공간정책 차원에서는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의 초점이 1970년대에 시행한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공업화정책에 따라 대도시와 입지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모아지면서 전국을 28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세분하였다. 특히 1982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입지규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였다.

특히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1968년부터 시작된 농가부업단지 조성사업과 1973년부터 착수한 새마을 공장건설사업이 개별적·분산적이고 기반시설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해 1980년대 중반부터 농촌지역에 농공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최초의 농공단지가 1984년 진천, 공주, 남원, 함평, 영천, 함양 등 6개 지역에 지정된 이래 1986년 23개, 1987년 46개, 1988년 45개, 1989년 48개, 1990년 49개로 급증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꾸

준하게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농공단지가 입지하게 되면서 산업단지 입지측면에서 볼 때 지역균형화가 이루어진 기간이다.

주첨단(2004), 대덕4·경남지능형홈(2005) 등이 있다.

#### 4) 제4기: 전국/복합·첨단단지 개발기

제4기의 시작년도인 1996년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공장용지 공급위주였던 공업단지가 첨단지식·정보통신·교육·정보처리·유통·주거·문화산업 등을 포함하는 복합기능의 산업단지로 확대, 개편되었다. 비록 제4기를 편의상 산업단지 지정이 다시 급증하고 재활성화된 2008년도 전년도까지로 한정하였지만 산업단지의 복합화·첨단화·다양화 현상은 앞으로의 산업단지 개발의 당연한 추세와 모델로서 계속 진행형이 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컴퓨터, 통신기기 등 IT, 벤처산업의 육성에 국가산업정책의 초점이 모아졌으며 이를 위해 1997년에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서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지원과 집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1999)되는 등 산업단지의 다양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개방경제의 확대에 의한 국가간 경쟁심화와 산업구조 변화,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 및 복합적 기능요구, 녹색성장시대 도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지식기반산업과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육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가 2001년에 도입되어 2002년에 최초로 전주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총 6개의 단지가 개발되었다. 이 기간 중 지정된 주요산업단지로는 구미4(1996), 과주출판문화·오송생명과학(1997), 송도지식정보(2000), 시화MTV(2001), 청주도시첨단(2002), 전

## 5) 제5기: 도심/노후산업단지 재생기

제5기는 산업단지가 재활성화되고 노후산업단지가 재생·구조고도화되는 시기이다. 2008년 6월에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2년 이상 소요되던 개발절차가 6개월 수준으로 단축되면서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정책이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제기되면서 산업단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92년 이후 2007년까지 연간 20개 수준에 불과하던 산업단지 지정이 2008년도에 96개, 2009년도에 73개, 2010년 9월 현재 64개 등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구조고도화에 관한 제도가 1996년에 도입된 이래 구로디지털 산업단지를 제외하곤 뚜렷한 재생사업 추진실적이 없었으나 2009년도에 산업단지 재생과 구조고도화 시범단지가 각각 4개씩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산업입지법을 개정하여 종전 ‘재정비사업’이란 명칭이 토지 및 기반시설 정비의 하드웨어적 성격이 강하여 산업기능의 회복이라는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나타나지 않다고 보아 ‘재생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재생사업의 공간적 범위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는 물론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산업화초기 1960~1970년대에 개발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시설의 낙후 및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기업생산성 저하, 도시팽창에 따른 산업단지의 도심편입과 이에 따른 환경·교통문제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고 효율적

인 재생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노후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구축된 물적·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정보, 인력, 생활환경 등 종합적인 산업기반 측면에서 양호하기 때문에 재생 여하에 따라 새로운 경쟁력의 창출은 물론 도시환경 정비 및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재생 필요성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막대한 소요재원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정부지원 문제, 재정비에 따른 기존 공장의 이전 및 생산중단 또는 차질, 이해관계의 조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했고 사업추진의지 또한 박약한 데 기인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다만, 1997년에 구로산업단지의 첨단화계획이 수립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행위제한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한을 완화하고 비제조업과 R&D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섬유제조업중심의 공업단지가 아파트형 첨단·복합산업단지로 변신하는 등의 성과에 힘입어 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보였다. 이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등을 거쳐 2009년에 비로소 노후산업단지 재생 우선사업지구로 대전1.2, 대구 도심, 전주1, 부산사상공업단지 등 4개 단지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서 시화반월, 남동, 구미, 익산의 4개 산업단지가 선정되었다.

비록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이 이제 겨우 착수기 수준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범단지가 선정되고 기본계획수립과 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산업단지 정책 방향은 그동안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산업단지의 복합화·첨단화의 추세가 지속될됨과 함께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에 힘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6\_ 국제공간분업구조의 국내 파급효과

국제공간 분업구조	국내산업정책	산업단지 정책
외국의 에너지다 소비산업/가공무역산업 후진국 이전	노동집약적 경공업·가공조립산업 육성	경공업/수출산업 단지조성
중국·동남아의 경공업 비교우위/중화학공업의 노동분업 이전	자본재 수입대체/경공업위주의 후진적 산업구조탈피/방위산업육성	중화학공업단지, 첨단복합단지조성

#### IV.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특성 분석

산업단지 개발과정을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산업단지 개발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시기별 특징뿐만 아니라 개발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특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 나라의 산업단지 개발이 자국의 산업정책 등 국내적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지만 세계경제의 흐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산업단지 개발특성을 국내외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변화가 한 나라의 거시경제뿐 아니라 실물경제 등 다양한 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중 국제공간분업구조와 자본이동이 산업단지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적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및 국토 산업공간 배치의 진화, 입지결정요인 및 산업단지 내의 토지이용구조 변화 등이 가장 주목되는 특성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 1. 국제공간분업구조 및 자본이동과 연계

우리나라 산업단지 업종의 중심은 1960년대의 경공

업,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1990년대 이후의 첨단 산업 등으로 변모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우리나라의 내적인 경제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과 노동력, 자본의 이동이라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계하여 찾아볼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의 공간 이동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공간적 압축을 추구한다. 브레튼 우즈와 가트에 따라 1950년대부터 국가 간 자유무역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국제무역의 증가는 선진국의 산업공동화, 재정적자, 제3세계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한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의 한계 등 세계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력 외에는 자본과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질서에 편입하여 부족한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출을 통한 외환보유고의 확대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의 에너지 다소비산업과 가공무역산업이 대표적인 산업이 되었으며 이러한 세계경제 분업구조하에서 우리나라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가공조립산업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분업구조하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조립산업, 자본집약적 기초소재산업으로 분업화를 이루고 국내에서는 이들 산업에 유리한 공간분업구조를 갖게 되었다(김재철, 1999: p31).

1970년대 들어 1950, 1960년대의 포드주의식 대량생산체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수출주도형 성장으로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달성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특히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산업화로 더 이상 노동력을 위주로 하는 경공업에서의 비교우위가 상실됨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국제 노동 분업에서 중화학공업

의 조립공정과 공해유발산업이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였다.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 육성은 이러한 세계경제구조측면과 더불어 경공업위주의 후진적인 산업구조의 탈피, 수입에 의존하던 자본재와 부품 및 중간원료의 수입대체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 미군철수와 맞물린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국내의 정치경제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었다. 현저에서의 원료기공이나 수입대체산업의 수출이라는 종래의 수출전략 실패로 선진국 기업의 기업 내 국제 분업에서는 노동집약적인 부분으로의 특화를 통해 수출 전략이 선택되어 왔으며 1970년 이후에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세계경제공간은 신국제분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공간분업구조나 자본이동현상을 수용, 국가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국가산업정책과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왔으며 특히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sup>2)</sup>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입지정책들이 도입되었다.

## 2.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발전특성을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하여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산업은 소비재 생산과 단순가공업 중심의 구조였기 때문에 국가산업정책 역시 기간산업육성을 통한 경제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에 의한 수출 촉진을 도모하려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노동력 외에는 산업발전 수준이 매우 낮고, 자원과 기술 등이 극히 부족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조속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원배분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국가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1962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단위의 국가경제계획이 수립되었다.<sup>3)</sup> 이러한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은 부분적인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대폭적인 확대와 수출증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이룩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개발이 추진된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산업별 구성

표 7\_ 국가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단위: %, GDP대비 구성비)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7년	2008년	
경제성장률	8.8	△1.5	9.2	9.2	8.8	2.8	5.2	5.1	2.3	
산업별 구성비	농림어업	29.2	16.2	8.9	6.3	4.6	3.7	3.2	2.9	2.6
	광공업	19.6	26.4	28.1	28.2	28.6	26.0	27.4	27.5	28.1
	건설업	5.1	8.0	11.3	11.6	6.9	8.0	7.5	7.4	7.0
	서비스업	44.7	47.3	49.5	51.8	57.3	59.6	59.7	60.0	60.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ecos.bok.or.kr>).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70년에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2000년에 확대개편),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2)이 제정, 시행됨.
- 3) 1996년까지 7차에 걸쳐 5개년 단위의 계획이 추진되었으나, 제5차 이후부터는 그 명칭이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되었고, 제7차는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계획으로 대체되면서 5개년계획은 사실상 종료되었음.

비 측면에서 보면 1960년대 40%대였던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이 1970년 29% 수준으로 감소한 데 이어 1990년부터는 한 자리 수로 급감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은 1970년 44.7%에서 2008년 60.3%로 대폭 확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산업단지 측면에서 주요한 광공업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는 15% 수준이었으나 1980년에 20%대로 진입한 이래 다소간의 등락은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27~28%대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주요 산업기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콜린 클라크가 지적한<sup>4)</sup> 바와 같이 국가경제 발전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제조업의 성장에 의한 공업구조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960대 초 경공업 중심에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1970년대 이후에는 경공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sup>5)</sup> 특히 1990년대 이후 컴퓨터, 통신기기 등 IT첨단산업의 육성과 마이크로·메카트로닉스(MT), 신소재, 정밀화학, 항공산업 등에 대한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 등에 따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주력업종이 종래의 석유석탄, 섬유, 음식료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화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기업의 5대 주력업종이 1980년의 석유석탄, 섬유, 1차 금속, 음식료, 화학제품에서 2003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석탄, 1차 금속, 화학제품의 순으로 변화되었고 제조업의 출하액 중 전자부

표 8\_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단지 유형

구분	제1기	제2/3기	제4기 이후
산업구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주도요소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제조설비/중화학공업	기술혁신/융복합화
산업단지 유형	섬유 등 경공업 산업단지	화학, 제철 등 중화학산업단지	첨단과학, 복합·클러스터산업단지
산업단지 영향력	주도적	주도적이나 감소 추세	보완적, 동조적

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47조 4,260억 원)가 자동차 등 기타 분야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개편은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요소투입을 전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을 퇴출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산업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도시 내 전통공업지역을 지식기반산업과 정보산업의 입지 공간 수요로 대체하여 첨단산업 단지로 전환하고 있고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와 주거 및 관광 기능이 가미된 복합산업단지로의 변신과 아울러 벤처·문화·과학·연구 등의 전문화된 산학연과의 클러스터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에 광주·대구·전주·대전·부산·강릉·춘천·청주·청양·사천 등 10개 도시에 대한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등의 정부시책이 밑바탕이 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첨단산업단지 시대가 도래되었다. 광주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대전 연구개발특구 2지구,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으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부산과학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음성

4)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의 중심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이행됨.

5) 제조업 중 경공업 비중은 1970년 70.4%에서 1980년 48.4%로 감소하고, 중화학공업은 30%에서 51.6%로 감소하였음.

하이텍, 오창과학, 강릉과학, 화성장안첨단, 탕정테크노컴플렉스, 천안산업기술단지,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이 지정되는 등 국가와 지방산업단지 모두 첨단화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전문화된 첨단산업단지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정보통신, 바이오산업 등의 신산업을 위한 벤처기업전용단지, 과학연구단지, 문화산업단지가 등장하였고 2001년에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1960, 1970년대에 제조업 등 전통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구로와 구미 등의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전주, 광주 본촌의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역시 변신해 왔으며 산업구조 변화에 산업단지 개발은 선행 또는 후행 양방향에서 영향을 끼쳐 왔다. 정부주도하에 산업정책이 대부분 결정되고 이행되었던 1960~1980년대에는 산업단지가 산업구조 변화에 주도적으로 선행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세계경제가 과학과 기술, 생산

이 결합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다품종 소량생산과 신기술 개발에 신속히 적응하는 유연적 생산체계로의 전환과정에서 산업단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동조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

### 3. 국토산업공간의 진화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발전특성을 국토공간 측면에서 본다면 제1기 내륙형, 제2기 임해형, 제3기 농촌형, 제4기 전국확산형, 제5기 도심회귀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대구분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공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시기마다 국가 중점육성산업이 변하고 산업별 입지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수도권역제 및 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토공간정책이 변화된 데 기인하였다. 제1기에서의 산업단지는 주로 서울과 인천, 성남,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청주, 춘천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내륙지역에 조성되었다. 이와 같이 내륙에 산업단지가 입지하게 된 것은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경공업에는 풍부한 노동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도시지역에의 입지가 불가피하였다. 또한 이 당시 산업단지 개발근거 법률로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있었으나 이는 수출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수출산업단지 외에는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근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였고, 일단의 공업용지사업은 용도지역상 도시 내 공업지역이나 도시개발 예정지역이 입지대상이었기 때문에 내륙형 입지가 형성된 이유이다.

제2기는 1기와는 달리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 6개 업종 중심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

표 9\_ 산업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구분	주요 내용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형, 지세, 지질, 기후</li> <li>토지이용현황</li> <li>하천현황, 식생현황</li> </ul>
주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구조, 취업구조, 산업시설 분포현황</li> <li>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li> <li>산업단지, 택지 등 기계발지의 활용 가능성</li> <li>편의시설 활용 가능성</li> <li>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성</li> </ul>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 접근성</li> <li>중심도시와의 접근성</li> </ul>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계획상의 기반시설 건설계획 연계성</li> <li>도로,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 용이성</li> </ul>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매입비, 지장물, 기반시설 조성비 등</li> <li>파급효과</li> </ul>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 생태계 및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li> </ul>

자료: 국토해양부(2008: p108) 참조.

국가전략산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산업단지가 대대적으로 조성되었다. 중화학공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어야 하고 원료와 완제품의 수출입을 감안할 때 항만과 용수 등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포항(철강), 온산(비철금속), 여천(화학), 울산(화학, 조선), 거제(조선), 창원(기계) 등 임해지역에 개발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동남권 해안지역에 걸친 대규모 중화학산업단지의 영향으로 경남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지대로 탈바꿈되었다. 이 기간 중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임해지역이 총 315km<sup>2</sup>인 데 반해 내륙지역은 16.81km<sup>2</sup>로 임해지역의 1/20에 불과하며 전국 광공업 종사자 중 경상남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6년 5.2%였으나 1980년에는 11.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제3기에는 1984년에 농공단지가 최초 지정된 이래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지역의 시군지역에 농공단지가 대거 지정되면서 전국의 농촌지역에 걸쳐 소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가 활발하게 지정되면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은 위축된 시기였다.

제4기 이후부터는 산업단지의 입지분포가 그동안의 특정지역 중심 패턴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이다. 이러한 입지분포는 1980년대 급증한 농공단지 지정이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일반산업단지가 집중 개발된 데 기인한다.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1990년까지 지정된 총산업단지는 43개로 연평균 1.5개 단지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총 277개, 연평균 15개의 단지가 지정되었다. 제5기에는 산업단

지 입지분포의 전국화가 진행됨과 아울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심 내 산업단지의 역할과 도시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 4. 입지결정요인의 다양화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는 국가산업단지의 일반적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동 규정을 토대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 장치산업은 원자재의 수급, 동력 및 공업용수의 확보가 필요하기

그림 2\_ 시기별 산업단지입지 공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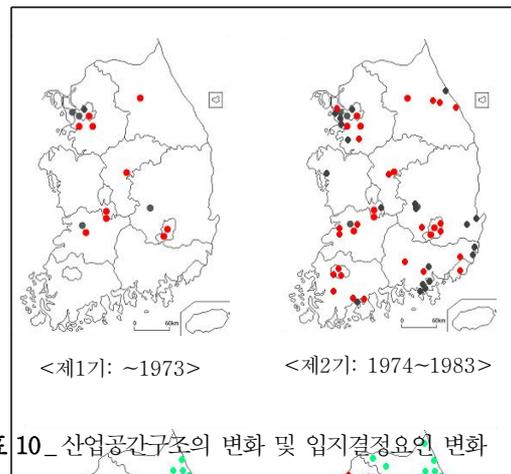


표 10\_ 산업공간구조의 변화 및 입지결정요인 변화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이후
산업공간	대륙형	임해형	농촌형	전국형/도심형
산업입지 주요인	정치·엘리트 개인/집단지향	지자체/지역 균형형화	지자체/지역 균형형화	입지자유화

6) ①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3리정 이상 100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시·군·읍·면·동·자치단체, ③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④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⑤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종류(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때문에 항만 등 교통시설과 전력, 용수 등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전자·전기 등 조립가공 산업은 연관 산업이 많고 교통시설이 확충되어 있으며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을 유리한 입지로 삼고 있다. 반면 반도체, 정보, 통신, 컴퓨터 등 첨단기술산업은 기술인력, 정보, 과학기술 등이 집적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입지결정은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여건과 시대별 주력산업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산업정책이 국가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표현이라고 할 때 산업정책은 수요관리보다는 공급 지향적 경제정책이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적극적인 개입으로서 시장기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특정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개별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개별입지와는 달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하여 공장을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기업입지 이론만으로는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개별기업들의 입지결정요인과 산업단지의 입지결정요인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

1960년대 초에 경부 축에 상대적으로 제조업체가 집중해 있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서울,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노선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였고 6.25 이후 부산지역에 피난민이 모임으로써 잉여 노동력이 광범위하

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공업단지 개발은 구미-대구-포항-울산-부산-마산의 ㄱ자형으로 구축되었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구미), 이후락 비서실장(울산), 박종규 경호실장(마산) 등의 지역출신 엘리트의 영향이었다(강용기, 1993: pp19-20). 이와 같이 산업화가 시작된 1960, 1970년대의 권위적인 정부 시대의 산업단지 입지결정 과정은 다른 시대에 비해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면적기준만으로 볼 때 호남권에 입지한 산업단지 면적이 영남권과 대등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 축 위주의 집중에 대한 반작용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자체 실시에 따른 지방정부 주도의 일반 및 농공 산업단지의 대대적 지정에 따른 것이며 충청권에 대한 증가현상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입지규제에 대한 반사적 효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7월에, 호남고속도로 회덕분기점~전주 구간이 1970년 12월에, 전주~순천 구간이 1973년 11월에 개통됨에 따라 1970년대의 산업단지는 경부 축과 호남 축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입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통시설에 대한 산

표 11\_ 산업단지 토지이용변화 추이

(단위: %)

연대	산업	지원	공공	녹지	합계
60	73.7	3.5	18.1	4.8	100
70	64.0	16.4	11.5	8.2	100
80	41.8	3.6	50.9	3.7	100
90	68.2	6.6	12.7	12.6	100
계	57.2	9.0	26.8	7.0	100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05)에서 재구성.

업단지의 의존도는 교통수단의 현대화에 따라 산업주체의 활동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교통비의 제약을 덜 받는 입지자유형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산업입지는 비공간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4기부터 산업단지의 입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었으며 첨단업종의 증가에 따라 단지의 규모도 작아지고 도시에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입지자유화 추세가 보이고 있다.

### 5. 토지이용구조의 고도화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구조 또한 초기 공업용지 공급위주에서 점차 지원용지, 녹지 등 비산업용 용지의 공급이 확대되는 복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내의 토지이용은 공장건설을 위한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의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별 변화정도를 추세적으로 볼 때 공공 및 녹지지역의 비중은 1960년대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산업시설 용지면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 및 상업용지 등을 함께 건설하는 복합단지로의 조성이 보다 일반화되고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으로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입지원단위 주요지표(가동업체당, 종업원당, 생산액당)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산업

표 12\_ 주요 첨단산업단지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지구분	광주과학	전주과학	강릉과학	오창과학	부산과학
연구시설	11.8	27.4	11.5	11.6	2.6
산업시설	20.6	18.9	22.4	28.2	34.0
녹지/공공	30.3	40.4	66.1	24.3	53.1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용지의 생산성 제고와 토지활용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pp37-39).<sup>7)</sup>

최근 지정, 개발된 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토지이용의 비율의 변화추세 현상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시설용지가 30%수준에 불과하고 생산과 연구, 주거 등 기능이 복합화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에서 볼 수 없는 교육연구시설의 비율(11% 수준)이 높고, 녹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이 20% 이상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적 변화를 보다 극명하게 대비해 보기 위하여 1964년 최초로 지정된 구로산업단지와 1997년에 지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토지이용을 비교하여 보았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산업단지 여건상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반면 산업시설구역은 75.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녹지구역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당시 수출산업단지로 지정된 부평과 주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는 당시 공장용지의 공급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며 현재와 같은 녹지 확보의 무비율<sup>8)</sup>이 없었던 데에도 기인한다. 반면 오송단지의 경우 산업시설공간이 43.3%에 불과하고 지원시설이 26.7%, 녹지가 11.2%의 면적을 차지하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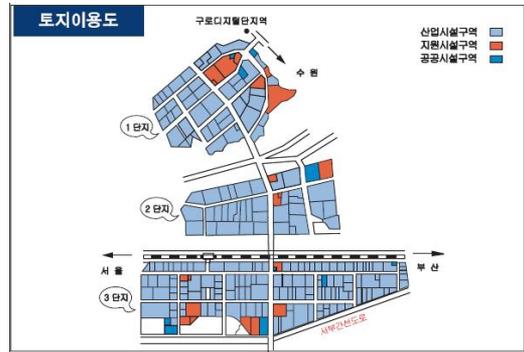
7) 종업원당 부지면적이 2000년 308m<sup>2</sup>/명에서 2007년 267m<sup>2</sup>/명으로 감소하고 생산액당 부지면적 역시 1,085m<sup>2</sup>/십억 원에서 628m<sup>2</sup>/십억 원으로 감소.

8)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m<sup>2</sup> 이상이어야 하고 단지규모가 3km<sup>2</sup> 이상인 경우 10%~13% 미만, 단지규모가 1km<sup>2</sup>~3km<sup>2</sup> 미만인 경우 7.5~10% 미만, 단지규모가 1km<sup>2</sup> 미만인 경우 5~7.5% 미만을 확보해야 함.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구조의 고도화 현상은 분명한 변화임에는 틀림없으나 제2기 임해형 중화학공업단지 개발시기의 경우 산업단지가 대규모 신도시형태로 개발되어 유보지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녹지율이 그 이후에 개발된 산업단지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등 당해 산업단지의 개발여건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모든 산업단지에 일반화하기 보다는 산업단지별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_ 산업단지 토지이용변화사례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에 대한 시기 분류를 통해 시기별 특징을 고찰해 봄과 아울러 산업단지의 과거와 현재에서 나타난 특성을 세계경제 구조, 산업구조개편, 공간변화, 입지결정요인, 토지이용의 복합화 등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난 50여 년간의 산업단지 개발과정은 제1기 내륙/경공업 산업단지 개발기(~1973), 제2기 임해/중화학공업 산업단지 개발기(1974~1983), 제3기 지방/농공 산업단지 개발기(1984~1995), 제4기 전국/복합·첨단 산업단지 개발기(1996~2007), 제5기 도심/노후산업단지 재생기(2008~)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발과정에 나타난 특성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비록 공간적으로는 국내에 입지하고 있지만 국제공간분업구조 및 자본의 이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산업단지의 유형과 입주업종이 변화되어 왔으며, 산업단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선행적·후행적으로 상호 간 영향을 미쳐왔다. 산업단지의 공간적 분포 역시 국가산업정책에 의한 주력업종의 변화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유형에 적합한 입지형태를 보여왔다. 입지결정요인 관점에서 볼 때 산업단지의 입지가 점차 경제성과 효율성,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결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통신 등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입지결정요인이 퇴조되고 입지자유화로 전환되어 오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산업단지 내의 토지이용계획 역시 종래의 공장용지 공급 위주에서 점차 첨단업종 입주와 산학연 연계 등 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 등의 환경변화에 맞춰 복합화로 바뀌어 가고 있음이 나타났다.

### 2. 정책적 함의

이와 같은 특성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복합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의 산업단지는 장래의 메가트렌드와 세계경제 구조 개편과 맥락을 같이해야 한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경쟁과 지역블록화 및 FTA체결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심화되고 있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기업생존의 열쇠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기업들이 생산, 유통, 금융조달, 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전문화 외에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둘째, 향후 개발되는 산업단지는 신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져야 한다. 점차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과 산업입지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자원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핵심생산요소가 토지자본에서 산업자본, 그리고 인적·제도적·사회적 자본으로 변화되었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종래의 산업구조에서 요구되는 도로, 상하수도, 철도 등의 하드인프라스트럭처 외에 연구시설, 정보, 기술인력, 생활환경 등과 같은 소프트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 연구소 등 기술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동종 또는 이종 간의 기술융합 및 상호 연계를 꾀하면 신기술개발의 위험분산, 기술표준의 전략화 등이 달성될 수 있다. 즉, 하드스트럭처와 같은 물리적 자본, 금융자본과 같은 전통적 자본 외에 혁신역량, 거버넌스와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산업입지 정책도 전국단

위보다는 지역별, 산업별, 기술별 특성에 따른 특화된 입지제공이 필요하고, 산학연 간에는 물론 기업 간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화가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가 단순생산기지에서 연구개발, 여가, 주거 등의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유기체적인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하므로 이에 부응한 산업입지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1960년대 산업화 이래 고도성장 우선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공해 및 환경질환의 발생 등 산업단지 입지지역에서의 다양한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친환경 요소의 투입이 핵심화두로 부상하였다.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물론 기존 산업단지를 어떻게 환경적으로 변모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며, 계획 입지에 비해 환경문제가 보다 심각한 개별입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960, 1970년대에 개발된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증가하고 도심 공업용지의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과 구조고도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에 있어 도시기능 및 산업단지 기능 양자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단지 내 공장용지 비율의 적정 조정방안, 주거 및 상업시설의 복합화의 정도, 단지별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재정비방식의 선택,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9년도에 시범단지가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어 이와 같은 시범사업의 시행결과가 향후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학문적 연구도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산업단지 개발 전 과정을 전체산업단지 개발의 거시적인 흐름과 그 특성을 하나의 맥락 차원에서 조망했기 때문에 분류된 시기 내에서의 미세한 변동성까지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시기구분에 사용된 자료가 일부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시기분류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부터 최근까지 50여 년간의 개발과정을 최초로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시기별로 분류해 보았다는 점,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국가경제정책과 산업구조, 국토공간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산업단지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의 연구과제로는 지난 50년에 걸친 산업단지 개발과정이 나름대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1960, 1970년대에 개발된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과 구조고도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재생 구성요소 도출과 유형별 재생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용기. 1993.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지역 결정요인”. 1993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 한국행정학회. pp1-28.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 2005. 산업입지제도개편방안연구. 국토해양부. 2008.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연구.

권오혁. 2009. 첨단산업과 도시. 서울 : 도서출판 한울.

김명기. 2005.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재철. 1999. “우리나라 산업입지 변화요인 분석 : 구조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권 제1, 2호. 강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pp27-45.

\_\_\_\_\_. 1996. “한국산업공간의 변화와 주변지역 공업화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 2009. “박정희정부의 산업정책 네트워크 분석-박정희, 전 대통령 면담자료(1964-1979)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한민국정부. 1972.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류승한. 2009.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의 역사와 전개과정. 경기 : 국토연구원.

박삼욱. 2007. 현대경제지리학. 서울 : 아르케.

박태원. 2009. 지속가능한 부동산 개발. 서울 : 도서출판 코보.

백영기. 2003.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입지 및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강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pp307-326.

유영휘. 1998. 한국의 공업단지. 경기 : 국토개발연구원.

장석인·서동혁·정은미·김경유. 2005. 미래의 산업발전과 국가전략의 모색. 대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1988. 지역발전을 위한 공업입지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 한국의 산업기술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2005.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구조변화연구. \_\_\_\_\_ . 2008. 산업단지 운용성과와 구조적 변동성 분석.

한국산업연구원. 2008.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한주성. 2009. 경제지리학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한울.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홈페이지(<http://industryland.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http://www.kicox.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ecos.bok.or.kr>).

- 논문 접수일: 2011. 1.14
- 심사 시작일: 2011. 1.28
- 심사 완료일: 2011. 2.25

## A Study on the Time Series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n Korea

**Keywords:** Industrial Complex, Time Series Classification, Development Characteristics, Industrial Location Policy,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Nowadays, industrial complex policy faces an urgent need to respond various demands and industrial environment change. New industrial complex policy making must be based on evaluation and retrospection of past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wo key subjects: one is to classify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eriods based on new criteria which is drawn out by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e other is to derive characteristics shown during development periods. For time series classification, over 50 years fo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has been divided into five periods. This study also analyzed five major characteristics ove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eriod. First, It has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capital movement. Second, types of industrial complex has been influenced by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and has effected its changes vice versa. Third, national industrial location has also been evolved geographically from inland, southeast coast, west coast, rural and agricultural area, to urban old industrial area recently. Moreover, industrial complex location determinants changed from key aides to President for 60's and 70's to economical standpoints, and finally it is observed that land use plan of industrial complex has been advanced from only plant use to multi and environment-friendly use.

###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의 시계열 분류 및 특성 연구

**주제어:** 산업단지, 시계열 분류, 개발특성, 산업입지정책, 산업단지재생

최근 산업단지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있어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산업단지 개발과정과 특성을 짚어보고 이러한 개발과정에 나타난 특성을 토대로 앞으로 산업단지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과정을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최초로 5개 시계열 단계로 구분하였다[제1기: 내륙/경공업산업단지 개발기(~1973), 제2기: 임해/중화학공업단지 개발기(1974~1983), 제3기: 지방/농공단지 개발기(1984~1995), 제4기: 전국/첨단-복합산업단지 개발기(1996~2007), 제5기: 도심/노후산업단지 재생기(2008~)]. 또한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과정에 나타난 특성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단지개발과정이 국제적인 노동 분업과 자본이동과 연계되었으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선행, 후행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아왔고, 국토산업공간의 진화를 이끌어 왔으며,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역시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와 산업클러스터의 구축 등에 따라 복합화되어 왔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